

정기석 “마스크 벗으면 고위험군 위험...빨리 접종해야”

60~64세 접종률 19%...“60대 초반 감염시 위험” “겨울 유행 안정 진입...고위험군 면역수준 우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경우 고위험군의 위험 노출이 더 커진다고 우려하며,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의 경우 시기가 압박됐지만 해외 상황을 고려하면 시간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

이 정점을 지나고 이제는 안정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고위험군의 면역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에 따르면 동절기 접종률은 60세 이상 고령층 33.9%, 면역저하자 28.9%, 감염취약시설 60.5%다.

고령층 중에서도 65세 이상은 접종률이 40%를 넘었지만 60~64세는 19%로, 65세 이상 접종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정 단장은 “60~64세의 치명률도 지난해

12월 동안 0.03%~0.07%를 나타내고 있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라며 “60대 초반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마스크 의무 조정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쪽은 고위험군”이라며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층, 특히 60대 초반,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만성질환 보유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개량백신을 접종해 면역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에 대해 “설 전에 어떤 정책을 발표하든, 설 이후에 시기를 못 박는 간에 이미 시기는 거의 다 됐다”며 “그걸로 인해 사회가 갑자기 해

이해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 단장은 “해의 요인이 없다면 저는 마스크 의무 해제는 다음 단계로 내려가도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국내 여건은 오늘 당장 만족이 됐다손 치더라도 해외적인 외부 요인들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정 단장은 “기분 좋게 설 전에 딱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방역 정책은 영웅적인 어떤 결정, 결단 이런 걸 요하는 분야는 아니다”라며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단장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에 대해 “바이러스의 변종성이 많이 약화돼서 전파력이 약해진다면 결국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낮추고, ‘주의’ 단계로 낮추면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대응 단계도 계속 낮춰가야 된다는 건 확실하다”며 “다만 그 시기가 또 어떤 기준을 갖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단장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왔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개량 백신 접종에 노력을 더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재환기자



친구와 함께하는 전통놀이 16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어린이들이 투호 던지기를 하고 있다.

학생 다툼에 책상 넘어뜨린 교사 아동학대?

전국 현직 교사 1800여 명 탄원

교실에서 다투던 학생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 이에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며 전국 교사 1800여 명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5일 광주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최근 초등학교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발로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고, 학생이 제출한 반성문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학생들이 싸우는 것을 말

리고 훈계하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렸고, 반성문도 찢은 행위를 저지 않는 등 누우침이 없다고 판단해 찢은 것”이라며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학대당한 점이 인정되고, 교권의 범위 역시 넘어섰다”며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이 “교원이 위축받을 수 있다”며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학생들이 주변 만류에도 계속해서 싸우고 반성도 부족해 훈계 차원에서 이뤄진 행동들”이라며 “바닥에 떨어진 교권의 현주소가 아쉽다”고 말했다.

이슬베기자

전남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전남도가 설 연휴 기간 관리·감독 소홀 취약 시기를 틈탄 환경오염 불법행위예방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설 연휴 전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사전 홍보와 계도를 통해 불법 배출행위와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업단지와 주변 하천, 상수원수계 등 환경오염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단속 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

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과 고의 상습적인 위반 사업장은 행정처분·고발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연휴가 끝난 27일까지는 환경관리 영세·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정상 가동을 위한 기술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영 전남도 환경관리과장은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점검, 환경오염 행위 신고 등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설 연휴를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목포시 48층 아파트 승강기서 화재...60여명 대피 소동

승강기 내 에어컨에서 화재 발생으로 추정, 정확한 확인 조사중

15일 오전 1시께 목포시 상동 48층짜리 아파트 승강기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승강기는 정지 상태로 탑승자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민 60여 명이 놀라 대비하는 소동이 벌어졌

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승강기 내 에어컨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확인을 조사 중이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